

광주·전남 '부동산투기' 전방위 수사 본격화

지역 공직자·지방의원 투기 의혹 20여 건 내사·수사
 광주선 퇴직 공무원 개입 부동산 투기 의혹 본격 수사
 현직 광양시장 일가 '아전인수' 도로 개설 사업 도마위
 화순·목포·신안·강진도 지방의원 등 투기 연루 '들쭉'

광주·전남 공직자·지방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경찰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광주·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역 전 현직 공직자·지방의원이 연루된 부동산 투기 의혹 20여 건을 수사 또는 내사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광주 모 자치구 전직 간부공무원 A씨와 지역 건설업자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광산구 소촌공단 외곽도로 개설공사 보상 과정과 관급공사 인·허가, 주거환경 개선지구 관련 지정·변경에 개입해 부당 수익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2017~2018년 소촌공단 도로 개설 예정지 주변에 땅을 산 뒤 2019년 전후 막대한 보상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1차 도로' 안쪽(공단 방향)에 8필

지를 구입해 공동주택 건립 등을 구상했고, 다른 이들에게 끌어들이며 거액의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8일 광주시청·서구청·광산구청 건설·개발 관련 부서 등 총 6곳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A씨의 혐의 규명에 주력하는 한편, 또 다른 공무원의 연루 여부도 조사 중이다.

광주경찰청 부패방지부위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화순군의회 B씨가 연루된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다.

B씨는 2015년 7대 화순군의회 의원으로 일하면서 알게된 도로 개설 정보를 이용, 부지 주변 건물을 사들였고 사업 이후인 2017년엔 건물을 되팔아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전남 화순군청 개발·허가 부서, 화순군의회 사무국 등 3곳에서 도시 계획(도로 개설), 예산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가 의원으로서 알게 된 정보로 투기 한 것이 아닌가 보고, 관련 수사를 계속한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자기 소유 토지에 도로 신설 공사를 진행, 보상금을 재산 신고에 누락해 논란을 빚은 정현복 광양시장 일가에 대해 수사 중이다.

정 시장과 그 아들이 소유한 광양읍 칠성리 호북마을 땅에 도로 신설 공사가 이뤄지면서 보상금을 공시지가보다 높게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시장 아내가 2019년 8월 매입한 농지 주변에 추진 중인 군도 6호선 도로 건립 공사사업도 수사 대상이다.

정 시장은 또 성황·도이지구 땅이 재개발 지구에 편입된 뒤 토지 보상을 현금으로 챙긴 뒤 공직자 재산 신고에 누락한 의혹도 사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정 시장의 관사와 광양시청 시장 집무실·도로과·총무과 등지를 압수수색, 각종 관급공사 핵심 자료 일체를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지역 개발 사업 관련 주요 결정권자인 정 시장이 부당 개입을 통해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 등을 규명한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목포·신안·강진 지역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전·현직 목포시의원 2명도 의원 재직 중 고하도 관광단지 개발사업 정보를 미리 알고 부동산을 사들인 정황이 포착돼 수사를 받고 있다. 현직 시의원은 도심 재생에 앞서 오피스텔을 사들여 후한 보상을 받은 의혹도 있다.

신안군의회 의원 1명도 미리 알게 된 도시계획 변경 정보를 연두에 두고 수십억대 대출까지 받아 용도 변경을 앞둔 부지를 미리 사들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2019년 7월 신안군 압해읍 신장리 도선장 일대 임야 6필지를 사들였으며, 군의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조만간 '상업 지역'으로 용도가 바뀔 예정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의원이 도시계획 변경 심의 소관 상임위 소속인 점 등으로 미뤄, 투기가매입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강진군 정무직 공무원도 가우도 관광단지 조성사업(2024년까지 관광·레저·휴양시설 건립) 관련 정보를 미리 얻어, 지인과 함께 지난해 초부터 해당 부지를 산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사업 검토 단계인 2~3년 전 행정청 내부 절차 과정에서 직무상 소수만 알 수 있는 개발 관련 정보를 취득, 이익 실현 목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사들였다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기동취재본부



광주 북구 용봉동 예방접종센터에서 75세 이상 노인 대상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광주서 화이자 백신 맞은 노인 한달새 2명 돌연사 당국·경찰, 접종 연관성 조사

광주에서 9일 전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맞은 노인이 또 사망해 보건당국이 역학 조사가 나섰다. 화이자 백신접종 이후 노인 돌연사는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이다.

1일 광주시 북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에 80대 노인 A씨가 광주 북구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119대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이날 A씨는 집안일을 하던 중 쓰러져 의식을 잃었으며, 평소 기저질환이 있었지만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23일 만 7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은 이력이 있지만 접종 후 별다른 이상 반응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 당국은 A씨 사망이 백신 접종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광주 북구에서는 앞서 지난달 20일에도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60대 노인이 4일 만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숨진 B씨는 간질과 파킨슨병 등 지병을 앓고 있었다. 돌봄 요양시설 접종 대상자였던 B씨는 지난달 15일 전남대병원 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았다.

보건당국이 접종 직후와 이튿날 B씨를 상대로 백신 이상반응 여부를 확인할 당시에는 이상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과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한 가운데 역학 조사를 진행 중이다.

기동취재본부

불성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논란'

민원인 “무성의한 태도에 갑질까지”
 담당자 착오 농업경영체 말소 피해
 도 넘어선 조사·행정편의주의 시달려
 농관원 “악성 민원까지 다 응대못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직원들이 민원인에 대한 무성의한 태도와 함께 갑질까지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 사업 및 친환경농산물의 인증과 관리, 안정성 조사,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4월 22일 민원인 A씨(50 장성)에 따르면 “최근 농업경영체 등록 갱신 문제로 농

관원에 전화해 진행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여러번 방문을 해 사업목록에 대해 상의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업무 착오와 오락가락하는 일처리로 결국 말소가 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모르면 모른다고 할 것이지 엉터리로 안내를 해 고생을 시키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다른 민원인 B씨(72 담양)는 “축산 직불금을 처음 신청해 본거라 방법을 잘 몰라 직접 방문을 해 안내를 받고 서류를 제출했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뒤져 뭐가 꼬투리를 잡겠다는 심보로 도로 넘어선 조사와 갖가지 갑질에 시달렸다”며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들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공무원들은 자신의 업무를 완벽하게 이해하



고 복무하면서 국민의 행복과 편의를 위해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주거나 특정 편에서 일하며 막무가내식 행정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실에 맞지도 않고 복잡해 접근하기 쉽지 않은 기준을 만들어 별 도움이 되지 않

는 행정편의주의로 국민들의 불편이 지속되면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관계자는 “악성 민원인들까지 하나하나 다 응대할 수가 없다”며 “악성 민원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직원들의 심정도 헤아려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윤희기자

제10회 보성세계차(茶)엑스포

2022 10th BOSEONG WORLD TEA EXPO

· 기간 2022. 4. 29. ~ 2022. 5. 5.
 · 장소 보성군 일원

보성세계차(茶)엑스포가 2022년에는 제 10주년을 맞아 대규모 국제행사로 개최됩니다.

보성군

전남농업기술센터

보성세계차(茶)엑스포조직위원회

전라남도

전남차업협회